

조선대 'DSR제강 채용설명회' 개최



조선대 종합인력개발본부(본부장 정운관)는 28일 오후 2공학관 2층 비파괴실험실에서 'DSR제강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선대 제공)

광주대 건축학과 졸업작품전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제20회 졸업작품전이 28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막했다. 이번 작품전에는 광주시 미술대전 건축대상 김국현(4년)씨의 '인터스페이스'(Inter Space) 등 30여점이 전시됐다.

광주 양지초등학교 곡성서 자연체험



광주 양지초등학교 '생태 사랑 아이 사랑' 교과교육연구회는 최근 110명의 회원들과 함께 국성 봉조리 자연체험학교에서 '산골마을로 떠나는 기을걷기' 행사를 기졌다.

(양지초교 제공)

최홍만 "애플 스트레스로 22kg 빼졌다"



최홍만이 tvN 토크쇼 '택시'의 녹화에서 "애플 스트레스로 정확히 22kg이 빼졌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죽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던 최홍만은 "너무 흥분되고 우울한 마음에 컴퓨터를 썼다가 충동적으로 쓰게 된 것"이라며 "걱정해준 팬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숱한 루머들로 많은 스트

레스를 받았다. 내가 운동으로 살을 뺐다는 보도

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오로지 스트레스로 22kg이 빼졌다"며 "애플을

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모

두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아서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축해야 미래 희망”

‘저축의 날’ 저축상 광주은행 이관형 대리

“꾸준한 저축을 통해 고객 통장의 돈이 불어난다는 생각 만으로도 항상 행복합니다.”

28일 ‘제45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저축상을 수상한 광주은행의 이관형(38) 대리는 직장 내에서 ‘저축 전도사’로 통한다.

항상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고객들에게 강조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60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최근 재테크의 주된 방식이 주식과 부동산 등이라는 점에서 단연 탁월한 성과라는 게 주위의 한 결같은 반응이다. 특히 이 대리는 지난해 4월 본점 영업부로 발령난 이후 1년6개월간 윤리 예금 유치액만 100억원을 훌쩍 넘기 만큼 저축에 대한 의욕이 남다르다.

이 대리는 “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 것이 유치 실적을 높인 것 같다”며 “저축을 통해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고객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리는 ‘저축 전도사’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은행 풍향동

지점에 입행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은행 창구를 찾는 60대 할머니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 대리는 “은행 입구에서 토론이나 담배 등을 파는 노점상 할머니가 날마다 수익의 절반 이상을 입금하는 것을 보곤 깜짝 놀랐다”며 “하루에 적게는 몇 천원에서 2~3만원을 꾸준히 저축하는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 여수 국동지점과 광주화정지점, 염주지점 등을 거치는 동안에도 저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걸어부쳤다.

그는 “날이 갈수록 재산에 대한 투자가 투기로 변질돼 가는 것이 가장 아쉽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원금을 까먹지 않고 꾸준히 돈을 불리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사진=나영주기자 mjna@

비·김지수·장미화 정부 표창

가수 비(본명 정지훈·왼쪽)와 영화배우 김지수(오른쪽), 개그우먼 장미화씨가 28일 ‘제45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 표창을 받았다.

비는 2002년 데뷔 때부터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에이즈 예방 홍보대사,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지수씨는 저축을 생활화하면서 장기 기증 운동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장미화씨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저축상 최고상인 국민훈장 목련장은 곡성 출신인 개인택시기사 심삼순(56·여·부산시 동구)씨가 수상했다. 심씨는 택시 운전기사로 26년째 일하면서 하루 한끼 식사 이외에는 전부 통장에 저축하고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

또 박재범(한국투자증권 광주중앙지점 차장)·박석호(한국청소년육성회 화순군지구회 사무국장)씨



는 국무총리 표창을, 이상재(광주시 북구 오치동)·이관형(광주은행 영업부 대리)·송미나(여·문흥중앙초 교사)씨와 홍은빛나래(대광여고)양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황성옛터’ 가수 이애리수씨 생존

18세때 불러… 음반 발매후 자취 감춰

‘황성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 해 /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 아가없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왔노라?

80년된 가요 ‘황성옛터’를 부른 가수 이애리수(李愛利수)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8세인 이씨는 경기도 일산 백송마을의 한 아파트형 요양시설에서 간병인과 자녀, 손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훨체어에 의지하고 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대화는 어렵다고 간병인들이 전했다.

왕평이 작사하고 전수린이 작곡한

‘황성옛터’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상을 담은 가사와 구슬픈 곡조로 큰 사랑을 받았다.

1928년 단성사에서 열린 극단 취성좌(聚星座) 공연의 막간 무대에서 18세 가수 이애리수의 노래로 처음 소개됐다. 본명이 이음전(李音全)인 이애리수는 개성에서 태어나 9세에 극단에 들어가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다 18세에 ‘황성옛터’를 처음 불렀고 1932년 음반 발매 후에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2세에 연희전문학교 재학 생이던 남편 배동필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집안에서 반대하자 동매를 끊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혼, 2남7녀를 낳아 기르면서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췄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오광호(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 박옥란씨 차남 효문(JT 인터내셔널코리아 광주지점)군 유의태·김영자씨 막내 애리앙=11월2일(일) 낮 12시30분 갤러리아웨딩홀 2층 크리스탈홀.

▲박병준·임화님씨 장남 융용(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군 이평수·윤덕임씨 차남 소윤양=11월2일(일) 오전 11시50분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1층 오페리홀.

▲이상옥(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전 광주일보 이사)·한신애씨 차남 훈호(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군 정순규(춘천다솜교회 담임목사)·김사라씨 장녀 영은(미디어스 기자)양=11월1일(토) 낮 1시 서울 명동 향린교회 3층 예배당.

▲이근영(전 광주일보 사진부

장)·김숙자씨 장남 모세(조선비지니스&TV PD)군 김경호·홍경숙씨 장녀 현주(서울 신동초 교사)양=11월1일(토) 오후 3시 서울 국민일보 CCMM웨딩홀 코스모홀.

▲노용섭(개미사)·최경숙씨 장남 유민(현대애드 대표)군 윤화식·이홍희씨 차녀 경미(김영조피부과 간호사)양=11월2일(일) 낮 12시30분 금호생명빌딩 웨딩의 전당 30층 아시아나홀.

▲이대황·양영희씨 차남 석군 박인선(광주지검 수사관)·고진주씨 장녀 운정양=11월8일(토) 낮 1시 서울 대검찰청예식장 별관 4층 무궁화홀, 광주 피로연 11월2일(일) 낮 12시 리더스클럽 금남로점.

▲고희석·박동임씨 장남 영인군 문종운·오명희씨 딸 지선양=11월1일(토) 낮 1시30분 사직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컨벤션 꿈에 그린홀.

▲광주·전남 검정고시 동문 체육대회=11월2일(일) 오전 9시30분 광주 진월동 효덕초교, 검정고시인은 누구나 참석 가능. 011-645-2284(사무국장 이의준).

▲곡성 중앙초 58회 동창회(회장 김용환)=11월2일(일) 오전 11시 청단지구 교통공원 족구장 잔디밭, 초보자 운행. 010-4604-4608(이은귀 전남과학대학 교수).

모집

▲한미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제 자원봉사자 모집=11월8일(토) 오후 1시~6시 청단 쌍암공원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걷는 O 페스티벌’, 인원 50여명. 062-431-802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 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 있는 분 062-525-1391.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이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랑·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부음

▲오병남(전 광주 북구청장)씨 별세 성민·태원·경득·경옥·경순·경민씨 부친상 장운현·김재팔·박봉진·김용필씨 빙부상=발인 30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주귀임씨 별세 김순체·연재씨 모친상 조영호·김영무씨 빙부상=발인 30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기열씨 별세 천석·정식·윤식·광식·춘애·춘화씨 부친상=발인 30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허옥래씨 별세 김산도·영훈·경순·선희·선정씨 모친상 이동기·김정희·장인씨 빙부상=발인 29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381.

▲강말래씨 별세 고기만·재종(시인)·남석·현석·진석씨 모친상=발인 29일(수) 담양 새마을장례식장 2호실. 061-383-4444.

▲송기선씨 별세 성호·순우·공심씨 부친상 조진환·임정섭씨 빙부상=발인 29일(수)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302호. 062-515-4488.

▲박정식씨 별세 성수·성민·대건·미정·윤희씨 부친상 이강철·서정씨 빙부상=발인 29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315.

